**마0607(2) Note**

**◆ 도우미: 끈질김, 중언부언**

◇케네스 해긴: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이미 구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위해 기도할 때는

또 똑같이 구하지 마십시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당신이 그것을 구했다는 것과 그 약속들이 들어있는 성경구절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당신이 그 응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

하십시요,

그리고는 응답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요

◇찰스 캡스 :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 p100

끈기 있는 믿음, 끈덕진 믿음이란, 단순히 계속해서 간청하고 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번 기도하고 구했으면, 그것이 나타날 때가지 그 약속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받고 얻고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끈기가 아니다.

◇ 낙담치 말고 기도하라, 끈기있게 기도하라

Ω눅110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비록 저가 일어나서, 그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그의 끈덕진 간청(아나이데이아: 건방짐,지저분함,강청함,부끄러움이 없음) 때문에, 저가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그에게 줄 것이니라.

Ω눅1801. 그리고 그분께서 이 목적으로 곧, 사람들이 항상 마땅히 기도해야 하며 또 생기를 잃지(엑카케오: 나쁘게 되다,약하게 되다,실망시키다,활기를 잃다,피곤하다) 말아야 함을 위해, 그들에게 한 비유를 이르시니라

눅1802. 이르시되, 어떤 성(城)에 한 재판관이 있으니라, 그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사람을 존중하지도 (엔트레포:반대로 하다, 존경하다, 혼란시키다, 존중하다, 부끄러워하다, 무시하다) 않았느니라.

눅1803. 그리고 그 성(城)에 어떤 과부가 있으니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오니라(미완료 과거형), 말하되, 내 상대에게 내 보복을 하소서(에크디케오: 변호하다, 보복하다, 벌하다, 복수하다),

Ω눅1804. 그리고 얼마동안 그가 하려 하지 않으니라, 그러나 후에 그가 속으로 말하니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을지라도,

눅1805. 그럼에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위해 보복을 할 것이니라, 그녀가 끊임없이 옴으로 그녀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을까 하느니라.

Ω눅1806.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니라, 불법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눅1807.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선택된 자들에게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분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 그분께서 보복하지 않으시랴?

눅1808. 내가 너희에게 이를 이르노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신속하게 보복하실 것이니라, 그럼에도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에, 그가 땅에서 믿음을 발견하랴?

◇토마스 주남: 천국은 확실히 있다. P269

"주님, 저는 크리스천 가운데 매우 성실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무엇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한다면, 그들이 진실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확인되는 한, 내가 그들에게 그 원하는 것들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많은 자녀들이 진실하게 기도하거나, 충분하리 만큼 오래 기도하지

않는구나, 인내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단다,

딸아, 너는 잘 인내하고 있구나, 너는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너는 쉬지 않고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구나, 나는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이 저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중

한분이 저에게 절대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필요한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주님"

"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인내는 그들의 신실함을

증명하지,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그들의 인내로 확인한단다. 또 비록 내가 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할 때일지라도, 그들이 신실하지 않다면 그 응답을 거두어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는 어떠한 때인가요?"

"딸아, 나의 자녀들 중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밤낮으로

기도하여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일단 축복을 받고 나면 마음이 변해, 내게서 떨어지고 다시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간단다. 그들은 내가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축복을 거두어 가는 이유란다"

* 분별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제 블로그의 어떤 저자분 중에 한분(여자분)이

천국으로 잡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10가지를 지금 구하라”고 하셔서,

황당한 중에 이것 저것 생각나는 대로 구하였는데, 하나씩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It’s done”이라고 하시더래요,

다시 말해서 구하는 즉시 그분께서 “그것이 행하여졌느니라”라고 말씀하신거지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즉시로 영적으로 “It’s done”이라는 영적인 응답으로

씨뿌려져 우리가 받으며,

그 다음에 씨뿌려진 영적인 것이 성장하여 때가 되면, 자연세계에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씨뿌려져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잘 자라도록 믿음에

굳게 붙어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이 즉시로 자연세계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우리가 구한 것의 믿음에 신의두텁게 계속적으로 붙어있지 못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 입으로 부인하여, 씨뿌려진 것을 죽여버립니다.

새벽기도에 나가서 한참동안 우리의 필요를 구한 다음에, 교회에서 나온 후에는,

길에서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요즘은 어때?”라고 물을 때, 우리는 “죽을

맛이야"라고 응답함으로써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구한 것을 교회 밖에서 금방

부인하여버립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것이 자라지 못하고 시들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자, 끈기있게 구하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같은 것을 계속 구하라는 말씀이기 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

우리가 받았다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굳게 붙어있는 것,

징그러울 정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믿음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요0515.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요구하는 (아이테오: 구하다, 묻다, 청구하다, 요구하다, 필요로하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원했던(요구했던) 청원들(아이테마: 요구,요청, 간청, 필요)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잘 알지는 못하면서, 몇 마디 덧붙였습니다.